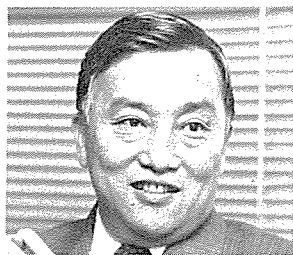


# 「世界과학장관회의」定例化

과학장관간담회...매년 IAEA 총회 앞서 열기로

鄭根謨장관, “國際科技협력체제 구축필요성” 강조



〈鄭根謨 과기처장관〉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문제 및 에너지위기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世界과학장관회의가 매년 定例적으로 개최된다.

國際원자력기구(IAEA) 제33차 총회의장인 鄭根謨과기처장관을 비롯 오시마 도이치 日本 과학기술청장관, 코노발로프 蘇聯원자력산업부장관등 31개국 66명의 장·차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과학장관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의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과학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IAEA는 그동안의 원자력 평화이용이라는 피동적 역할에서 인류가 직면한 기아·환경오염·에너지위기 문제해결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매년 열리는 IAEA총회에 앞서 세계과학기술장관회

의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鄭장관은 세계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과학기술협력체제를 구축, 공동 대처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세계과학장관회의의 정례화, 국제협력기금설치, 거대기술의 국제공동연구등을 추진하자고 제안, 각국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다.

## 北韓 核안전協定가입 촉구

### 鄭과기처장관, IAEA 34차총회 개막연설

제34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가 9월17일 상오 오스트리아 빈의 오스트리아센터에서 南·北韓을 비롯 미국, 소련등 IAEA 회원국 1백1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총회의장으로 선출된 鄭根謨과기처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鄭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아, 질병, 지구환경파괴, 에너지위기등 세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에 IAEA회원국이 앞장서 줄 것』을 역설했다.

韓國수석대표인 鄭장관은 회의 이틀째인 18일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北韓이 핵전면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21일까지 5일동안 계속된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8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北韓의 조속한 핵전면안전조치협정가입을 촉구했다.

지난 57년 UN 전문기구로 발족한 IAEA는 핵물질의 핵무기 전용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백13개국이 가입해 있다.

## 과기처인사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관 郭鍾善 ▲서기관 郭鍾喆 ▲기계기좌 金溶煥(이상 파견근무) ▲인력정책관 李相泰(부이사관) ▲기획예산담당관 尹聖熙 ▲기술제도담당관 盧弘吉 ▲인력개발담당관 李相賢(이상 서기관) 9월24일자

## SW 開發業에 稅制혜택

科技處, 製造業과 같은 세제지원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개발 업체도 제조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금융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科技處와 財務部는 SW개발 업체육성을 위한 이같은 세제 지원방안에 합의하고 90년도 세제개편시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사항은 SW개발업에 대해 창업시 현재 기술용역업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조세감면대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SW개발업을 포함시켜 제조업과 동등한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創業되는 모든 SW 개발업체는 5년간 소득세공제 혜택(소득금액의 50%)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2백인 이하의 SW개발업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돼 투자준비금의 損金算入등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 EMI 檢證표시제 실시

#### 電磁波장해 검정규칙확정

체신부가 電磁波放射기준 및 전자파傳導기준등을 명시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전자파장해(EMI) 검증 합격표장이 부착되지 않은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등 정보기기의 유통이 금지



◇ 체신부가 확정한 EMI 검증 합격표장 된다.

이에따라 전열기구 TV수상기 및 FM라디오수신기 전자오락

기 전자레인지등 전기 전자기기류와 의료용 및 산업용 고주파이용설비 키폰 모뎀등 유성통신단말기, 컴퓨터등 정보기기류는 생산과 함께 전자파장해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품만 출고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르면 전자파방사기준은 TV수상기의 경우 측정거리 3m에서 주파수 65~1백35MHz 이하는 최대허용전계강도를 5백마이크로 볼트이하로 규정, 이를 초과하면 합격검증을 받지 못한다.

## 科技政策연구평가센터 확대개편

### KAIST 부설로 이관, 92년엔 獨立기구로

科學技術處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이관시키되 오는 92년부터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기로 했다.

科技處는 내년엔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연구인력을 현재 51명에서 62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는 87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연구와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족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科技處가 이같이 평가센터를 이관하기로 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이 교육기관화함

으로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최근들어 정부 각 부처내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세우는등 정부측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범부처적인 기술개발사업의 종합기획·평가·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연구평가센터는 앞으로 기술수요·시장수요·경제성분석에 따른 전략적과제 선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기획 지원사업은 물론 연구결과·연구프로그램·연구기관 등에 대한 종합평가지원사업,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개발과 연구개발의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정책연구사업등 3대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韓·中 과학기술교류 本格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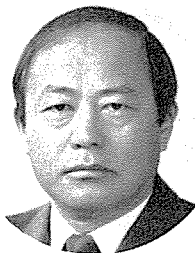
### 「科總·中國科協」…民間次元서 交流키로

#### 科總李傑三사무차장, 中國방문 實務협의

韓國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中國科學技術協會(主席 錢學森)와 民間차원의 科學技術交流를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科總 李傑三사무차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中國科學技術協會의 초청으로 中國을 방문하여 中國科協의 劉恕사무총장과 양기관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갖고 科總과 중국과학 두 기관이 설립목적과 사업추진 방향이 유사하며 양국의 과학기술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 또한 서로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두나라간의 과학기술자 교류, 간행물 교환, 국제회의 상호초청등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각기 기관의 소정 준비절차를 거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실무적인 합의를 보았다.

中國科學技術協會는 현재 155개의 학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으며 동시에 전국의 省 및 직할시로 부터 군단위에 이르기까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요 기업체에 技術協議會를 연계 운영하므로서 科學技術界의 求心體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다. 北京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본부에만 8개부서에 250여명의



〈李傑三 사무차장〉

상근직원을 事務處에 두고 있으며 科協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전시관, 국제회의장등 부설 기관까지 합하면 약 1,3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대한 기관이다.

앞으로 두기관이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雙務協定으로 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完全合意한 분야

- 定期·非定期 간행물교환
- 自體 또는 산학학회 주관의 국제학술회의 상호초청
- 과학기술자의 교류와 과학기술정보교환

■ 檢討豫定 분야

- 과학기술시찰단 교류
- 공동연구추진
- 과학기술자 연수
- 과학기술전시회 교환개최
- 韓·中 두나라 인근지역의 기상·환경등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학술회의 공동개최.

한편, 科總 李傑三사무차장은 이번 訪中기간중 中國科協의

알선으로 上海지부도 방문하여 沈國雄부주석등 관계인사들을 만나 지부의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李사무차장은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작년 科總의 연계하여 설립된 延吉의 中國北方朝鮮族科學家協會(회장 姜貴吉 延邊大 교수)를 방문하여 앞으로 이 협회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귀국했다.

### 고속 光電送장치 개발 電子通信研, 92년까지 완료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초당 20억개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2Gbps급 광전송시스템을 오는 92년 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설계 및 규격작성을 이미 끝내고 올하반기부터 광단국 및 감시제어기능개발 기술전수 등으로 나누어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연구소는 올 연말까지 광단국의 실험모델개발 및 감시제어기능의 모델정립 등 개별 소자를 이용한 실험모델의 개발을 끝내고 내년중 중요기능을 집적회로화한 광단국의 1차 실험시제품 및 감시제어기능의 실험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92년에는 광단국의 2차 실험시제품 및 동기식기간전송기술 등 2Gbps급 광전송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전수에 나설 계획이다.

## 우리 科學文化財 外國 박물관에 전시

### 文化部, 전통과학문화재 復元사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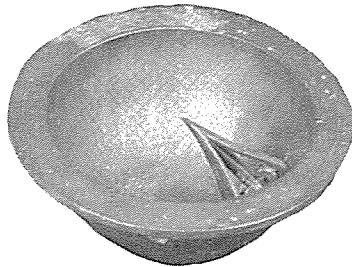
文化部는 우리 科學文化財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전통과학문화재의 복원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계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차적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측우기, 양부일구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문화재를 실측조사서(1989. 6, 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모형을 만들어 외국의 유명박물관에 기증, 전시도록 협의,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1차로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등 20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과학문화재의 최고성을 전세계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 순차적으로 각급 박물관에까지 그 대상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과학문화재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학계의 학술논문과 자료들도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학자와 학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과학문화의 과학사적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작정이다.

문화부는 전통 과학문화재중 복원해야 할 문화재는 독창적이고 우수하면서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중에서



◇ 文化部가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韓國 최초의 해시계인 양부일구

1단계 사업으로 올해에는 보물 제1561호 「금영측우기」와 보물 제845호 「양부일구」 보물 제843호 「관상감 측우대」를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2단계인 '91년도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과 국보 제230호 「혼천시계」 그리고 앞으로 문헌상의 고증과 실험을 토대로 자동시보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국보 제229호 보루각 「자겨루」를, 제3단계인 '92년도에는 인쇄분야, 금속기술분야의 문화재 등을 복원하므로써 우리 과학문화재의 최고성을 전세계에 올바르게 알려 21세기 과학기술의 문화창달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 科學大衆化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 韓國委

UNESCO 韓國위원회는 9월 1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科學大衆化워크숍을 개최했다.

韓國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월남, 호주등 9개국의 과학기술관련 학자와 언론인, 전문가등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과학언론과 사회발전, 과학언론의 질적향상, 현대사회내에서의 과학기술문화 및 과학언론의 지역간 협력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韓國측 발표자는 李鍾郁(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선임연구원), 金容駿(고려대교수), 崔潤熙(수원대교수), 朴星來(외국어대교수), 金學銖(서강대교수).

### 이어도...海洋科學기지도 海洋研, 해양관측기기 설치

韓國海洋연구소는 국가종합 해양관측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제주도 남서쪽 85해리에 위치한 전설의 섬인 이어도에 해양기상을 관측할 종합해양관측기기를 설치, 해양과학전초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국가종합해양관측망 구축 10개년 계획의 첫사업으로 이어도에 해양과학전초기지를 설치키로 하고 9월5일 해양연구팀이 여수를 출발, 7,8일에 이어도에 燈부표, 파고조위계등 해양관측기구를 장치했다.

해면밑 4.6m의 암초인 이어도에 설치된 등부표에는 기상 및 해양관측용 센서를 부착,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수온 염도 썰물과 밀물 등을 관측하게 된다.

## 집안서 氣象情報 직접 수신

### 시스템 공학센터, 자동수신시스템 開發

氣象衛星이 보내오는 기상정보 신호를 가정이나 학교등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자료로 변환시켜 얻게하는 기상위성 영상자료 자동수신시스템(APT)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센터 朴景允박사팀이 개발한 이 수신시스템은 미국의 기상위성 노아 10,11호에서 발사하는 VHF(초단파)를 추적용 안테나로 포착, 이를 디지털신호로 변조시켜 PC를 통해 영상자료를 얻어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16비트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느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해 판매가 시작될 내년쯤부터는 집안에서 기상위성에서 직접 수신한 일기도를 통해 일기예보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고도와 방향을 조정, 기상위성이 쏘아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는 안테나와 VHF 수신기,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켜주는 A-D변주기, 이를 컴퓨터에서 영상자료로 나타내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科技處의 특정연구과제로 연구를 시작, 현재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국내 중소기업에서 양산에 들어갔다.

이 연구팀은 내년에 시판될

시스템은 우선 가정과 학교등에서 교육과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학습 보급형 시스템으로 가격은 1백만원 내외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 科學技術人테니스大會 개최

#### 10월19일 잠실올림픽구장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0월19일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은 물론 과학

기술단체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를 잠실 올림픽테니스구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이 테니스대회는 노년부와 장년부, 청년부로 나뉘어 예선리그 및 결선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노년부는 60세이상, 장년부는 50세이상 60세미만, 청년부는 50세미만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찬조회원단체는 1개 기관에서 특별A부와 특별B부 각 2팀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30일까지 科總총무부(전화 553-2181/5, FAX 553-2170)에서 접수한다.

## 今世紀 최고 天體물리학자

### 스티븐 호킹박사 來韓강연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英國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가 「시사저널」 초청으로 9월8일 來韓, 3박4일간의 방한기간동안 두차례의 강연회를 가졌다.

1차는 10일 상오 서울大 문회관에서 물리학·천문학 전공학자 및 관련분야 과학자를 대상

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2차는 같은날 하오 신라호텔에서 젊은 과학도 및 과학교사·천체물리학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블랙홀과 아기우주」를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48세의 호킹박사는 21세때 「루 게릭병」이라는 근육 무력증인 불치의 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채 휠체어에 연결된 특수컴퓨터로 연구활동을 하면서도 우주의 신비를 푸는 「무한경계우주론」등 3대 이론을 세워 아이슈타인에 의해 금세기 최고의 천체물리학자로 꼽히고 있다(강연내용은 본문 참조).

# 분사식 다기능 無公害洗劑 개발

## 化學研 · 피존연구팀, 무좀菌도 살균

세척은 물론 살균 및 냄새 제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다기능洗劑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韓國화학연구소 공업화학부 궁리환박사팀과 <주>피존에 의해 공동 개발된 이 다기능세제는 원하는 곳에 분사한 뒤 마른 걸레나 종이등으로 닦아주면 세척, 살균은 물론 목고 찌든 냄새까지 없애주며 개미나 바퀴벌레등 해충의 접근까지 막아주는 혁신적인 것이다.

가정에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기생하는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 욕실의 세면대, 욕조, 변기청소를 위해 염소계 화합물과 산성세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 간혹 눈, 목, 코 등 신체를 자극하는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목숨마저 앓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다기능세제는 人體에 해가 없이 탁월한 세척, 살균, 냄새제거효과를 발휘하므로 위생적인 가정환경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다기능세제는 고급지방산알콜을 출발물질로 하여 얻어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를 간단한 스프레이형태로 개발됐는데 세척효과외에 무좀균까지 살균이 가능하고 알데

히드나 인산염이 함유되지 않아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고 처리된 물질부식의 위험성이 없으며 물에 녹여서 사용되므로 간편하고 毒性이 없으며 생분해가 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세제는 또 Bacturicide, Fungicide, Tuberculocide Virus (HBV, HIV) 억제제로 사용되며, 식물유와 동물유등의 오염물도

세척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Incubator 의 특수유리, PVC, PP, Linoleum, 고무, 페인트,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표면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 사용할 수 있다.

### 水災義捐金 기탁

科總, 中央일보사에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權彝赫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단체일동은 9월18일 水災義捐金 3백21만5천원을 中央日報社에 기탁했다.<모금현황은 10월호에 게재>

## 全國 청소년 科學競進대회 開催

### 科振, 10월14일 여의도中과 고수부지사

韓國과학기술진흥재단은 제 6회 전국靑少年科學競進대회를 10월14일 汝矣島중학교와 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미래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한 이 대회는 지난 4월 과학의 달에 학교대회를 시작으로 각 市道郡대회를 거쳐 선발된 5백94명이 각 종목별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靑少年 과학경진대회 전국대회는 模型 항공기 공작경진(고무동력기, 글라이더)을 비롯 과학상자조립경진, 모형자동차경진(버기카,

레이싱카), 라디오 조립경진대회 등 4개 종목이 실시되는데 지상에서는 원격조종기로 조작되는 전동모형자동차가, 드높은 창공에서는 각종 모형항공기가 가을하늘을 수놓게 될 것이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모공항공기 경진에 192명, 과학상자조립 경진에 220명, 모형자동차경진에 120명, 라디오 조립경진에 62명등 모두 594명이 참가하는데 이 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는 종목별로 장학금과 함께 과기처장관상, 문교부장관상 및 관계기관장상이 수여되고 우수 지도교사에게도 문교부·과기처장관표창장이 수여된다.



### 한국항해학회

韓國航海學會는 8월17일 한국해양대학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한국해양대학 閔丙彦교수를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외에도 새 총무간사에 박相甲교수(한국해양대학)를 선출하고 1990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10월 열기로 확정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 「유선 TV시스템용 월킨슨형 신호분배기의 보상법에 관한 연구(김동일/한국해양대)」 「총체적 신체자장에 관한 연구(정태권/한국해기연수원)」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辛鉉植)는 9월28일 건축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베를린공대 환경공학부학장인 Heinz Wagner교수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에서 Heinz Wagner교수는 「독일에서의 근대건축발전사」에 관하여 강연했다.

동학회는 또 14일에는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온돌세미나를 개최했다.

住宅 2백만호 공급에 따른 공업화주택기술과 관련한 조립식 온돌난방에 대한 제반기술향상 및 정보교환을 위해 열린 이 세미나에선 고려대 주남철교수등 6명의 연사가 「온돌의 역사」 「온수온돌난방의 기술현황과 전망」 「온돌의 열환경」 「온돌의 에너지해석기법」 「온돌에서의 축열체와 열매」 「조립식 온돌의 시공과 유지관리」 등 6개 연제가 발표됐다.

### 한국과학저술인협회

韓國科學著術人協會는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해온 협회를 社會法人으로 전환, 9월22일 KID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명예회장에 洪文和박사(서울大 명예교수)를 추대하고 朴益洙회장을 유임시키는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부회장에는 金明子 숙대이과대학장·閔英基 경희대자연대학장·朴承載 서울대사대교수·庚基洙 원광대교수·玄源福 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감사에 韓源錫 과학문화사사장·鄭海相 겸지사사장을 선출하였다.

### 한국해양연구소

韓國海洋연구소는 9월17일

호텔신라에서 제2차 국제南極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南極에 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칠레등 10개국의 남극전문가 30여명이 참석, 남극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남극연구의 방향 정립과 정책수립을 위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 한국요업학회

韓國窯業學會(회장 張性道)는 8월23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제5회 유리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전남대 김병훈교수의 「다공질 유리의 응용」 등 3편의 특별강연과 한국유리연구소 노태준씨의 「건축용 결정화유리의 개발에 관한 연구」 등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淵植)는 오는 10월26일 인하대학교에서 제4회 재료·물성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박막재료」를 주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동화씨의 「박막재료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과학기술원 박순섭씨의 「기상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박막합성」 등 1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 과학기술계뉴스

### 음향학회 · 전자 공학회 · 통신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安秀桔) · 大韓電子工學會(회장 李相培) · 韓國通信學會(회장 康昌彦)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가 9월28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렸다.

신호처리는 통신, 음성, 영상, 음향, 자동, 의공학분야로부터 각종 측정 및 탐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외의 많은 대학에서 학부의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컴퓨터시각」 「패턴인식」 「영상부호화」 「영상처리」 「신경회로망」 「음성신호처리」 「적용신호처리」 「의용신호처리」 「VLSI신호처리」 등 9개 분과에서 7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9편의 논문은 포스터로 발표됐다.

### 한국경영과학회

韓國經營科學會(회장 朴淳達)는 오는 9월22일 숭실대학교에서 금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컴퓨터응용, 생산관리, OR/MS, 최적화기법, 경영학, 통계응용, 공공응용분야등 경영과학 전분야에 걸쳐 논문발표와 함께 「미래정보사회에서의 경영관리전망」에

관한 특별강연, 「정보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의사결정방법론」을 주제로 한 튜토리얼이 실시됐다.

###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孫明煥)는 8월25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90년도 동력학 및 제어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삼성전기 홍성욱박사의 「소형모터의 진동·소음원인 및 대책」등 학술강연 4편과 「공작기계 주축계의 베어링계수 규명」에 관한 논문발표가 있었다.

### 한국펄프 · 종이공학회

韓國 펄프 · 종이工學會(회장 辛東韶)는 9월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용인군 양지리조트연수원에서 제1회 제지기술자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光復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제지기술자 연수교육인 이번 교육에선 전국의 주요 제지회사 및 관련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지전반에 대한 기술, 특히 종이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직업관의 확립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 한국식품과학회

韓國食品科學會(회장 金俊平)

는 오는 11월 2~3 양일간 리베라호텔 3층 백제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45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키로 하고 발표논문초록을 접수하고 있다.

발표논문초록 제출마감은 10월10일까지이며 학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회관 412호, 전화 566-9937, 5412)에서 접수한다.

###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韓國原子力產業會議가 日本原子力產業會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2회 韓日원자력산업 세미나가 오는 10월23~24 양일간 日本 東京에서 개최된다.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을 위하여」란 테마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여론동향 △대중언론매체의 동향 △반원전활동과 대응전략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대책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건설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의 수용태세 △원전주변의 역학조사활동의 현황과 사례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임상병리학회(회장 姜得龍)는 학회 사무실을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학협회내 601호로 옮겼다.

전화 : 795-9914



科總회원단체 10월 학술행사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한국잠사학회	최영철	추계 학술발표회	10.11~12	농업진흥청잡업시험장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제2회 한일유체공학학술회의	10.11~13	KOEX
한국우주과학회	조경철	가을학술발표회	10.12	전북대
한국농업과학협회	오봉국	농업과학협회 심포지움	10.12	농촌진흥청
대한전자공학회	이상배	ATD TV 국제학술대회	10.12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대한임상병리학회	강득용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12~13	광주신양파크호텔
대한해부학회	이규식	제40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0.12~13	한양대
한국유전학회	박상대	제2차 한·독 분자유전학심포지움	10.12~13	팔레스호텔
한국식물분류학회	이우철	Cytotaxonomy Workshop	10.12~13	고려대
대한내과학회	황기석	제42차 추계학술대회	10.12~13	위키힐호텔
한국생약학회	이은방	추계세미나	10.13	덕성여대
대한생리학회	김우경	제42차 추계종합학술대회	10.13	서울대 의대
한국작물학회	황종규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13	서울대 농대
한국가축번식학회	이근상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10.13	경상대
대한위생학회	조운승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10.13	서울시립대
한국표면공학회	백영현	제28회 정기총회	10.13	과총회관
대한수학회	윤재한	정기총회 및 추계연구발표회	10.13~14	이화여대
대한금속학회	김연식	용융환원 및 신주조기술에 관한 한·영 국제학술회의	10.14~19	산업과학기술연구소
한국폐기물학회	이승무	국제 심포지움	10.18~19	동아대
대한산부인과학회	곽현모	제18회 연수강좌	10.18	신라호텔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준	제34차 추계학술대회	10.18~20	힐튼호텔
대한안과학회	윤정우	제6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18~20	위키힐호텔
대한토질공학회	김상규	한·일 토질공학회 공동세미나	10.18~20	타워호텔
대한공업교육학회	이재원	국제학술회의	10.19	충남대
한국고분자학회	안태완	추계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0.19~20	전남대
한국농화학회	하덕모	추계임시총회 및 학술발표회	10.19~20	서울대 교수회관
대한비뇨기과학회	김동한	제42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19~20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종철	제33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19~20	부산파라다이스비치호텔
대한피부과학회	송준영	제4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19~20	인터콘티넨탈호텔
대한산부인과학회	곽현모	제44회 정기총회 및 제66차 추계학술대회	10.19~20	신라호텔
대한화학회	김용준	제66회 연회 및 추계총회	10.19~20	강원대
한국천문학회	박홍서	추계학술발표회	10.19~20	전남대
한국의류학회	김혜경	추계학술세미나	10.20	이화여대
한국박용기관학회	하주식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20	한국해기사협회

## 과학기술계뉴스

단 체 명	대표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한건축학회	신현식	추계 학술발표대회	10.20	인하대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학술강연회	10.20	전남대
대한인간공학회	박경수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10.20	계명대
한국원예학회	전재기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10.20~21	단국대(천안캠퍼스)
한국표면공학회	백영현	한·일 진공박막기술심포지움	10.20~21	한양대
한국고무학회	백봉기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10.23	화학시험검사소 (부산사업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신규식	제64차 학술대회	10.24	설악파크호텔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손병진	에너지절약강습회	10.25	과총회관
한국섬유공학회	고석원	추계기술세미나	10.25	반도유스호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신규식	제3차 한·일 이비인후과학술대회	10.25~26	설악파크호텔
한국자동차공학회	조경국	재료 및 부품부문위원회학술강연회	10.26	고려대
한국구조공학회	안두식	급냉응고기술공동심포지움	10.26	인하대
대한약리학회	허 근	제9차 한·일 약리학세미나	10.26	경주콩코드호텔
대한법의학회	최 진	법의학 월례 집담회	10.26	고대회화병원회의실
대한생화학회	유충근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0.26~27	전남대
한국기상학회	한영호	가을학술발표회	10.26~27	부산 수산대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제17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10.26~27	육군사관학교
대한지질학회	김중수	제45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10.26~2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충남대
대한방사선의학회	신경섭	제46차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10.26~27	롯데월드호텔
대한소아과학회	정우갑	제40차 추계 학술대회	10.26~27	위커히호텔
한국물리학회	안세희	제61회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10.26~27	강릉대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통신용 직접회로 워크숍	10.26~27	연세대
대한약학회	우원식	제3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0.26~27	전남대
대한수의학회	박근식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10.27	경상대
한국산업미생물학회	양한철	제36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10.27	고려대
대한가정학회	임원자	제43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10.27	서울대
한국원자력학회	이창진	추계 학술발표회	10.27	한양대
대한약리학회	허 근	제4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0.27	경주콩코드호텔
한국식물학회	이인규	199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10.27~28	강원대
한국생물과학협회	정용재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대회	10.27~28	강원대
대한금속학회	김연식	추계 학술강연 및 발표대회	10.27~28	인하대
한국동물학회	강만식	추계 정기학술발표대회	10.27~28	강원대
한국미생물학회	최영길	추계 학술발표회	10.27~29	강원대
대한교통학회	임강원	고속전철건설에 따른 역사임지 및 연계 교통망 정비방향 세미나	10.29	대전중앙관광호텔
한국목재공학회	정희석	목재가공기술연수회	10.29~31	서울대호암생활관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황관영	추계 학술대회	10.31	중소기업회관

## 과학기술인동정

• 閔寬植 과총명예회장(대한체육회 명예회장): 北京아시안게임 韓國선수단 고문자격으로 9월15일 北京으로 출발,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하고 28일 귀국.

• 權舜赫 科總회장: 9월4일 延世大 산업대학원 산업고위자과정(제9기생)에서 특별강연. 8일 동덕여대 開校4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다.

• 趙完圭 과총고문(서울대총장): 9월14일 크리스터 실벤 스웨덴대사와 스티그라멜 노벨財團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최근 노벨상의 수상경향과 우리나라 과학자의 노벨상수상가능성에 대해 의견 교환.

• 朴浚圭 국회의장: 9월26일 大德연구단지를 방문, 한국과학기술원강당에서 연구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 연구원들과 우리 정치현황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朴의장은 이어 원자력연구소와 전자통신연구소 시찰후 10월9일 개관예정인 국립중앙과학관을 둘러보고 무궁화동산에 기념식수를 했다.

• 鄭根謨 과기처장관: 9월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世界科學長官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鄭장관이 지난해 9월 제33차 IAEA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피선되면서 세계과학장관회의를 제안해 이루어진 것으로 식량부족, 지구환경파괴, 에너지위기 등 현안들을 범세계적인 과학기술협력시스

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열린 것이다.

• 李海成 과총부회장(한양대총장): 8월31일 상오 10시 교내종합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정년퇴임교수 7명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가진뒤 이어 12시 프레지던트호텔 산호실에서 환송기념오찬을 가졌다.

• 金昞源 科總부회장(한국화학<주>사장): 9월24일 한국엔지니어클럽에서 개최된 科總상설위원회인 「産學협동위원회」 금년도 제3차회의를 주재.

이번 회의는 과총산하 각 학회의 산학협동사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科總의 산학협동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 鄭助英 科總상임부회장: 최근 국내외의 각종 최신자료를 수집, 「北韓의 과학기술과 산업」이라는 책자를 발간.

9월27일 在日韓國과학기술자협회 金海坤부회장의 禮訪을 받고 환담. 특히 母國과학기술계와의 보다 효율적인 교류방안에 관하여 협의했다.

• 朴源燾 科總이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獨逸·헝가리·蘇聯등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공동연구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9월2일 출국.

朴원장은 소련과학원과 공동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모스크바 물리공학연구소 및 민스크의 백러시아과학원과도 협력협정서를 교환하고 16일 귀국.

• 金明燮 科總이사(대한약사회

장): 9월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0차 세계 藥學연맹(FIP) 총회에 한국약사대표단 20명과 함께 참석한 후 5일 귀국.

• 朴榮浩 科總이사(釜山수산대교수): 금년으로 교육계투신 37년째이자 지난 5월로 회갑을 맞아 동문후학들로 구성된 「靑巖 朴榮浩박사 華甲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화갑기념논문집을 펴내는 한편 그동안 신문잡지등에 발표했던 수상·수필 49편을 묶어 수상집 「두루미의 춤」을 도서출판 詩路에서 발간.

• 朴容大 중앙기상대장: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美하와이에서 열린 「自然災害輕減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회의」에 美國 국가연구위원회 초청으로 참석.

금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경감 국제10년(IDNDR)사업과 발맞추어 열린 이 회의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尹興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아치과의원장):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치과의사연맹 78차총회 참석차 7일 출국.

尹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97년 세계총회의 서울 유치·교섭활동을 벌이고 17일 귀국.

• 金吉助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 협회회장(中央大 교수): 내년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힐튼호텔에서 91년도 아시아·태평양지역 電算감사인대회를 개최기로 하고 대회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회에는 亞·태지역 25개국에서 7백여명의 전산인들이 참가할 예정.

## 유행성 출혈열 백신 개발

### 〈주〉綠十字, 「한타박스」市販개시

유행성 출혈열(학명 腎症候 출혈열)예방백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綠十字(대표 許永燮)는 9월21일 주로 가을철 추수기에 들판에서 서식하는 등줄쥐 집쥐들의 배설물에 의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 백신 「한타박스」를 생산, 國立保健院검정을 거쳐 이날부터 市販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유행성 출혈열백신은 녹십자와 고대의대 李鎬汪교수팀이 지난 80년 개발에 착수, 84년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한데 이어 임상시험을 완료, 10년만에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녹십자측은 이 백신을 카톨릭의대 병원과 高大 혜화·구로병원등 3개병원에서 임상실험한 결과 항체양성률 97%의 높은 효과를 나타내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으며 그동안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인명피해를 낸 유행성 출혈열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행성 출혈열은 발병초기에 오한, 고열, 두통등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이다 통증이 동반되면서 출혈증상과 신부전증으로 악화되며 치사율이 10%나 된다.

녹십자가 개발한 한타박스는

1,2차 접종으로 면역되며 매년 2회의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1회 접종비용(0.5cc)은 1만1천원 원이다.

### 太陽전지판 생산개시

#### 金星産電, 오산공공장서

金星産電(대표 李喜鍾)은 최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핵심부분인 태양전지판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金星産電이 지난 '89년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후 약 40억원을 투입, 동사

오산공장에 연간 350Kw용량의 태양전지판 생산시설을 갖추고 양산에 들어간 이 태양전지판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핵심부분으로 지금까지 국내 수요량 전체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 금성산전의 양산개시에 따라 연간 4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얻게 되었다.

金星産電은 그동안 전력계통선이 없는 낙도, 벽지의 통신장비와 有·無人등대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공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남 여천군 화화도와 진도군 관내도서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바 있다.

## 半導體 제3공장 起工

### 三星전자, 忠南牙山에 明年3월 完工

三星電子 반도체부문(사장 金光浩)은 9월8일 忠南 牙山郡 排芳面에 위치한 반도체 제3공장 단지내에서 沈大平 충남도지사, 姜晋求회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半導體 제3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공된 반도체공장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반도체생산에 주력해온 富川공장과 器興공장에 이은 제3공장으로써 약12만평대지 규모에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제품을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전용공장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제3공장은 내년 3월 완공목표로 지상3층, 지하1층에 연건

평 3만4천평규모로 건설되며, 시생산단계를 거쳐 91년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체비를 갖추 예정이다.

이 공장은 조립 및 검사단계의 생산체제의 확립으로 다품종 소량생산과 패키지 다양화가 가능한 생산기술능력을 갖추게 되며 또한 효율적 설비자동화 추진으로 조립 및 검사 공정내, 공정간의 자동반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내부의 크린룸 설비능력은 4메가디램까지도 조립, 검사할 수 있는 청정도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